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확대회의의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의 지도

은 나라 인민이 조선로동당창건 75돛이 되는 올해를 우리 식 사회주의 발전행로에서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놓는 해로 빛내기 위한 거창한 혁명적대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확대회의의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확대회의에서는 조선혁명발전의 관건적인 시기에 조성된 대내외정세속에서 국가방위력과 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해야 할 필수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나라의 정치적안정과 자주권을 철저히 보위하며 적대세력들의 지속적인 크고작은 군사적위협들을 민



관들을 든든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며 군사, 정치, 후방, 보위 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조직진행해 나가기 위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공화국 무장력이 군사정치활동에서 항구적으로 견지해나갈 중요문제들과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새로운 군사적대책들에 관한 명령서들과 중요군사교육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구개편안에 관한 명령서,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군사지휘체계를 개편할데 대한 명령서,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명령서를 비롯한 7건의 명령서들에

음직하게 견제할수 있도록 전반적공화국무장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군사적대책들과 조직정치대책들이 연구토의되었으며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확대회의에서는 인민군대를 비롯한 전반적공화국무력의 군사정치활동에서 나타나고있는 일련의 편향들에 대하여 총화분석하고 그를 극복하고 결정적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도적문제들과 무력구성에서의 불합리한 기

구, 편제적결함들을 검토하고 바로잡기 위한 문제, 자위적국방력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편성하여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억제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확대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군사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부문별과업들이 다시한번 강조되었다.

확대회의에서는 국가무력건설과 발전

의 총적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확대회의에서는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장을 선거하고 일 부 위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무력기관의 주요직 제지휘성원들을 해임 및 조동하고 새

로 임명할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5돛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정면돌파전의 위대한 승리의 첫해로 빛내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높이 평가, 격려하며 주요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확대회의에서 인민군대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

관들이 명명할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5돛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정면돌파전의 위대한 승리의 첫해로 빛내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높이 평가, 격려하며 주요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확대회의에서 인민군대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

관들이 명명할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5돛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정면돌파전의 위대한 승리의 첫해로 빛내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높이 평가, 격려하며 주요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확대회의에서 인민군대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

관들이 명명할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조국소식

새 기술, 새 제품개발에 이바지하는 많은 산업미술도안 창작

올해에 들어와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사회주의문명을 꽃피우는데 이바지하는 제품도안, 상표도안이 수없이 나왔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우리 식의 수확고관정무인기도안을 완성하였으며 응용분야가 넓은 3차원인쇄기, 연료소비량을 줄일수 있는 난방식기이로를 비롯한 제품도안들도 내놓았다.

최신과학기술보급의 거점인 과학기술전당에서 도서 자동편집화상입력기, 삼지연시과학기술도서판 카드도안 등을 실용적이고 편리하게 제작하여 최신기술자들의 수자화와 보급사업에 리용하도록 하였다.

평양화장품공장, 원산구두공장, 류원신발공장을 비롯한 공장들에서는 도안창작실, 도안실을 훌륭히 꾸리고 창작력량을 강화하여 인민들이 즐겨 찾을수 있는 많은 인기상품도안을 창안하였다.

평천구역도시건설대에서 내놓은 여러가지 형태의 보도블록도안은 도로의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이바지하였으며 민들레학습공장에서도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취미에 맞으면서도 학습의와 애국심을 키워줄수 있게 창안한 새로운 학습장표도안들이 호평을 받고있다. 상표도안을 다양하고 특색있게 창작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맛고 건강에 유익한 강병이차상표도안 등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한 평양강병이차공공장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면서도 우리의것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가질수 있도록 상표도안들을 부단히 혁신하고있다. 룡성고기가공공장에서 물고기 가공품들에 대한 통줄임상표도안들을 감칠맛이 나게 창작하였으며 장자산종합식품공장에서는 고품격과 자를 비롯한 여러 과자상표도안을 간결성과 집중성, 상징성이 보장되게 만들었다.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새도안창작열풍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세차게 일어번지고 있다.

본사기자

평양종합병원건설에 펼쳐나선 건설자들이 콘크리트기공사량의 76% 이상을 수행하고 20층에 달하는 입원병동

2호동의 골조공사를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건설연합상무에서는 건설기공과 자재보장 등을 적극 선형시키면서 모든 단위가 시공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건설물의 질과 속도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공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입원병동 2호동 골조공사를 끝낸 건설자들은 드넓은 면적에서 콘크리트기공이 진행되는데 맞게 립체전, 전격전을 들이대며 날마다 높은 공사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공사장에서는 대형화물자동차들의 실동률을 높여 자재보장을 확고히 앞세우는 한편 현장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성능높은 혼합설비들을 일식으로 갖추어놓고 합리적

하루가 다르게 키돋움하며

— 평양종합병원 건설장에서 —

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과감한 돌격전을 들이대고있다. 공사장에서는 또한 단위별, 작업반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맡겨진 공사과제수행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건설자들은 혼합물의 배합비율을 과학기술적으로 정하고 질적지표의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과 함께 휘틀 및 철근조립 등을 선형시키고 압송기와 압송기차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말은 대상건설에서 립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기계공업성 산하단위에서도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 보내줄 설비, 자재생산에서 립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326전선종합공장 평양전동기공장에서는 필요한 부

속품, 부분품 등을 확보하고 기능공력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설비들의 가동률을 끌어올림으로써 5월 설비생산과제를 기한전에 결속하였다.

안주뿔프공장에서는 주물

품생산을 선형시키고 단조품생산과 가공, 뿔프조립속도를 높여 월 뿔프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였으며 평양베아링공장, 량책베아링공장에서는 대상설비제작에 쓰일 각종 규격의 베아링을 짧은

시간에 생산하였다. 한편 경성예자공장에서는 원료, 자재보장을 확고히 앞세워 예자생산에서 혁신적성과를 기록하고있다. 전인민적인 자력갱생대진군에 활력을 부여주며 평양종합병원건설자들은 공사과제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시간에 생산하였다. 한편 경성예자공장에서는 원료, 자재보장을 확고히 앞세워 예자생산에서 혁신적성과를 기록하고있다.

전인민적인 자력갱생대진군에 활력을 부여주며 평양종합병원건설자들은 공사과제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